

“바다 힘을 전기로” 신안군, 조류발전산업 메카 도약 준비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기후변화·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 대응

신안군이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발전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안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신안군 일원의 조류발전 자원을 분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해 지역 내 부존 에너지 자원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조류발전의 지역 여건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조류에너지 잠재량은 약 12GW로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10GW가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에 부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군은 풍부한 조류 자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특성을 지닌 조류발전에 주목해 왔다.

신안군은 조류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과



착지형 조류발전기 구상도.

조류발전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신안군은 맞춤형 미래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을 극대화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이미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3~6일 황금 연휴 어디 갈까



공룡박물관 전경.

과거와 미래의 만남 해남공룡박물관 ‘공룡대축제’ 3~5일

화석 발굴 체험하고 모형 조립 순환열차로 박물관 곳곳 탐방 저글링쇼·빅 벌룬쇼·버블댄스

‘제3회 해남공룡대축제’가 3~5일 공룡박물관에서 열린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룡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릴 올해 축제는 국내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공룡의 세계를 직접 만나

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확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들이 공룡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며,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존을 조성했다.

참가자들은 거대한 공룡의 세계를 실감하는 한편 직접 고고학자가 돼 화석을 발굴하거나 공룡모형을 조립하는 등 상상 가득한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공룡순환열차를 타고, 공룡발자국 탐험대가 돼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공룡의 생태에서 멸종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 담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축제의 주무대인 잔디광장에서는 공룡버블댄스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인기 캐릭터 ‘핑크퐁과 튠튠뱀’의 댄스파티 공연부터 ‘캐치! 티니핑’과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 및 브레이드이발소 캐릭터와 함께 노래하는 캐릭터 싱어롱, 비눗방울쇼, 저글링쇼, 빅 벌룬쇼 등이 축제장을 달굴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 안전요원이 상주해 각종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축제기간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청정바다 치유와 미식 여행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3~6일

해변공원·해양치유센터 일원 225m 전복 해조류 치유 김밥 국민 밴드 YB 힐링 콘서트 ‘완도 방문의 해’ 행사 풍성

‘2025 장보고수산물축제’가 3일부터 6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펼쳐진다.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바다로 떠나는 치유와 미식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 행사 등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

행사 첫날인 3일 ‘장보고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식에서는 ‘푸른 바다의 전설 장보고의 귀환’을 주제로 한 공연과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해신’ 방영 20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가 진행된다.

4일에는 ‘전통 노 젓기 대회’,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함께하는 ‘청해 가왕’이 열린다. 5일에는 ‘청해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225m의 전복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국민 밴드 YB의 ‘힐링 웨이브 블루 콘서트’ 등이 준비됐다.

6일에는 완도군이 선도적으로 이끄는 해양치유를 주제로 한 ‘해양치유 특화 음식 읍면 경연대회’와 폐막 행사에는 가수 박서진이 함께하는 ‘Sea You 완도’를 진행한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자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대나무 바다낚시’와 ‘전복 따기 체험’, 어린

이들이 10여 종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완도 왓슨 키즈 월드’, 완도에서만 자생하는 완도호랑가시나무에 소원을 적어 겨는 ‘완도호랑가시나무 소원 존’ 등이 있다.

전복과 광어 등 싱싱한 완도 수산물을 시작하고 살 수 있는 ‘완도푸드마켓’과 완도산 해조류 등을 판매하는 ‘완도푸드 특산물 마켓’도 운영된다.

장보고수산물축제 관계자는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관광 혜택도 마련돼 있으니 우리나라 수산 1번지, 해양치유의 중심지 완도를 찾아 행복한 추억 쌓으시길 바란다”라며 “완도만이 축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본부장 ejhung@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스타트업’ 육성 ‘속도’

중기부 ‘특화역량 BI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창업보육센터와 컨소시엄 구성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Business Incubator) 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BI)와 창업 관계기간간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최대 2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2억 원과 기관 대응자금 1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300만 원 규모다.

지원센터는 대성창업투자(주), (재)전남바이오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해양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 자원의 가치를 혁신해 K-Food, Beauty, Health 분야의 글로벌 창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 교육 ▲기술 지원 ▲국내 IR(Investor Relations)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창업보육센터 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며,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운영승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장은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군, 물김 위판고 1230억원 ‘역대 최대’

올해 8만3991t...전년비 8% 증가

해남군의 2025년 물김 생산이 역대 최대 위판고를 달성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송지 어란위판장을 마지막으로 올해 물김 생산을 종료했다. 그동안 8만 3991t을 생산해 123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37%(2만 2499t), 금액으로는 8%(91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시기에 갯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 김이 큰 인기를 끌면서 물김의 수요가 증가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특히 해남 어민들의 어장사용 기간 만료로 지난해 양식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만호해역의 어장 이용 합의에 따른 김 양식 재개가 큰 힘이 됐다. 만호해역에서 재개된 김양식 면적은 1119ha로, 물김 1만6000여t을 생산했다.

또 1월 들어 홍수 출하에 따른 물김 위판가 하락과 폐기 등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어업인들의 김 시설판 감축 등 자정활동도 한몫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김 생산이 종료된 어장의 양식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스탠드형 충전기 최대 130만원·이동형 15만원

영암군이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암군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가정, 사업장에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

군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비 3900만원을 확보해 30대 분량의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벽에 부착하는 충전기와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15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인 개인과 영암군의 기업·법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영암군에 완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 계약 체결하고, 계약업체가 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설치비가 지급된다.

이번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태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번 보급사업을 포함해 전기차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경찰서-신안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업무협약

신안경찰서(서장 이현준)와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이 최근 신안 가거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안군 최남단 가거도를 시작으로 전 지역 37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지역 학교 관사와 주변 공공장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



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 있도록 학교 내·외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안경찰서 이현준 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